

광주·전남 ‘좀비PC’ 피해 속출

악성코드 감염 90여건 접수…지자체·금융권 등 감시체제 강화

국정원 “16개국 86개 IP 통해 사이버 테러”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악성코드에 감염된 ‘좀비PC’가 10일 0시부터 PC에 저장된 모든 파일정보를 자동 삭제하는 활동을 시작하면서 전국적으로 300여대가 피해를 본 가운데 광주·전남에서도 피해 사례가 잇따라 네트워크 보안에 비상이 걸렸다.

광주시와 전남도, 컴퓨터 보안업체들에 따르면, 이날 오후까지 이 지역에서만 90여건의 악성코드 감염 사례 혹은 감염 의심 사례가 접수됐다. 광주·전남 지자체와 광주은행 등 금융권, 삼성전자 등 산업체는 이에 따라 백신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고 피해 의심 PC 복구에 들어가는 등 피해 확산에 대비해 감시체제를 강화했다.

전남도의 경우 본청 10대를 비롯해 여수·순천·구례 등 모두 49대의 감염

의심 PC가 확인돼 긴급 복구했다. 국정원은 현재 해당 컴퓨터에 대한 정밀분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날 디도스 악성코드가 파괴한 문서파일에서 정부기관 전산망에서 사용하는 ‘아래아 한글 확장자(.kwp)’가 발견되자 전남도는 보안대응 수위를 최고조로 격상했다. 도는 앞서 지난 9일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분청과 시·군 공무원들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기도 했다.

광주시도 정보보호팀을 가동, 중앙서버의 트래픽(접속량)에 대한 24시간 감시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광주·전남 시군구청도 이날 업무개시에 앞서 업무용 PC를 안전모드로 켜고 윈도 날짜를 10일 이전으로 설정한 뒤 최신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지역기업체들도 기민하게 대응했다. 한전 전남본부의 경우 좀비 PC로 의심이 되는 7대를 파악해 바이러스를 제거했다. 삼성광주전자,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금호산업, 포스코 광양제철 등 산업체와 한국광기술원 등 첨단지구 연구기관들도 최신형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하루 종일 분주했다. 광주은행 등 은행권과 증권가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보안시스템을 풀가동했다.

광주시 상무지구 소재 데이터 복구전문 회사인 명정보기술에도 이날 디도스 공습에 따른 고장으로 보이는 6대의 PC에 대한 수리가 의뢰돼 확인 결과, 모든 파일이 삭제된 것은 물론 부팅도 되지 않았다. 이 업체에는 이들 PC 6대의 수리 의뢰 외에도 30건이 넘는 피해 문의가 빗발쳤다.

한편, 경찰은 좀비PC를 파괴하는 신종 악성코드를 내려받은 국내의 86

개 속주사이트 가운데 5개는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중 4개를 확보해 정밀 분석 중이나 이번 사태의 범인은 아직 찾아내지 못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디도스 공격과 관련, 한국과 미국, 일본, 파테말라 등 16개국의 86개 인터넷 주소(IP)를 통해 사이버테러가 감행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16개국에 북한이 포함돼 있지 않지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사이버스톱’ 비난성명 발표와 공격대상이 보수단체라는 점, 특정해커가 쓰는 수법 등으로 미뤄 북한 또는 중북세력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추정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과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영기·강필성 기자 penfoot@

故 노무현 前대통령 49재 안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장의위원회’ 관계자들이 10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화산 사자바위 아래에 조성된 묘역에 노 전 대통령의 유골을 안장한 뒤 ‘대통령 노무현’이라 쓴 비석을 얹고 있다. <경남신문 성민건 기자>

3만여 추모객 눈물속 유골 안장식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10일 고향인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영면에 들었다. <관련기사 2면> ‘고 노 전 대통령 국민장 장의위원회’는 이날 낮 12시 봉화산 사자바위 아래에 조성된 묘역에서 3만여명(경찰 추산)의 추모객이 모인 가운데 고인의 유골을 묻는 안장식을 엄수했다.

지난 5월29일 영결식 직후 봉화산 정토원 법당에 임시로 안치됐다가 이날 오전 49재를 마친 뒤 봉하마을로 옮

겨진 유골을 견호씨가 가슴에 안고 묘역에 도착하면서 안장식이 시작됐다.

안장식은 군 조악대 연주에 이어 불교·기독교·천주교·원불교의 종교의식이 열렸고 유가족과 전직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시민사회 원로,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헌화하고 분향했다.

또 노 전 대통령 생전에 각별한 인연을 맺었던 ‘자갈치 아지매’ 이일순 씨 등 시민대표 14명도 헌화와 분향

하고 고인을 추렷했다.

이어 고인을 추모하는 영상물 상영, 유골함을 석관에 안치하는 봉안식, 석관에 모래를 넣는 허토 순으로 진행됐다. 고인을 추모하는 21발의 조총발사와 묵념이 이어지면서 안장식은 모두 끝났다. 안장식이 끝난 직후 높이 40cm, 가로 새로 각각 2m 크기의 ‘아주 작은 비석’을 기증기로 묘역 위에 얹으면서 노 전 대통령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

한편, 이날 오후 광주시 동구 광산동 옛 전남도청 광장에서는 300여명이 모여 고인을 추모했다. 서울, 부산, 울산, 인천,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도 추모행사가 이어졌고, 전국 주요 사찰에서도 49재 및 진혼제가 열리기도 했다. /이종형기자 golee@·연합뉴스

주말·휴일 20~60mm 장맛비

주말인 11일 장마전선이 활성화되면서 전남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20~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1일 광주·전남지역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오전부터 목포·영광·무안·함평 등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한두 차례 비가 내리겠다”며 “강수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지역에 따라서는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0~22도, 낮 최고기온은 26~28도로 평년기온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비는 휴일인 12일 오전까지 이어진 뒤 오후부터 차츰 갇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23도, 낮 최고기온은 29도가 예상된다. /이종형기자 golee@



光州日報과 함께
행복한 주말을

“여의사도 내가 죽었다” ▶3면

온라인 알뜰 쇼핑 ▶4면

여름철 산사 체험 ▶5면

Books ▶8·9면

독자와 함께 ▶13면

최나연 US오픈 선두 ▶15면

